

# 配偶者選擇과 性意識에 關한 研究\* (I)

—日本 女子大學生을 對象으로--

## A Study on Mate Selection and Sexual Consciousness (I)

—Investigation for Unmarried Japanese Women College Students —

韓國放送通信大學 家政學科

副教授 : 金 惠 善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Correspondenc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im Hye Seon*

忠南大學校

助教 : 金 英 姬

*Department of Home Economic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eaching*

*Assistant : Kim Young Hi*

### 目 次

I. 序 論

II.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III. 理論的 背景

IV. 研究對象 및 方法

V. 結果 및 分析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attitude toward marriage, mate selection and sexual consciousness of Japanese unmarried women students whom are believed in drastic change in an overall social value system and norm due to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ivilization, so as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f the same subject of our young women in similar situation.

Survey was carried out for 177 unmarried Japanese women students of 3 Universities located in Osaka prefecture, Japan.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SPSS BATCH SYSTEM.

\* 이 論文은 1983 年度 放送通信大學 學術 研究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Results are as follows;

- 1) Pattern of mate selection—An increasing tendency of love match is recognized.
- 2) Attitude to marriage—94.0% of correspondences want to marry and proper age of marriage, they think, is between 22~25 years.
- 3) Love—marriage relation—most correspondences answered that love is a prior condition for marriage, however, 32.8% of correspondences think, love can be built after the marriage.
- 4) Dating—most correspondences want free dating, however, they feel that they are lacking for opportunity and they are not confident in the selection of proper mate.
- 5) Premarital sexual intercourse—most correspondences show a very generous attitude toward premarital sexual intercourse if they are in love and this attitude becomes more remarkable among love match makers.
- 6) Equality of sexes—most correspondences answered that as women are different in physiological function from men, distinctive social roles of both sexes and the inequality of sexes are inevitable.

## 序 論

結婚은 人類歷史上 가장 오래된 制度로 그 目的과 配偶者 選擇方法이 時代에 따라 變化해 가고 있다. 傳統社會에서는 結婚의 目的이 家의 永續과 家門의 繁榮에 있었고 따라서 配偶者의 選擇은 婚主人 兩家의 父母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수동적입장에 있었던 結婚當事者는 배우자의 선택이나 배우자에 대해 異意를 提起할 수 없어 結婚에 관한 심각한 감동이 表面化될 수 없었다. 그러나 結婚의 目的이 當事者 두사람이 새로운 家庭을 건설하고 個人의 幸福을 추구함에 있는 現代社會에서는 愛情이 그 첫번째 動機가 되어야 하며, 사랑을 바탕으로 한 男女의 交際 卽 配偶者選擇過程을 누구나 거치게 되어 이에 대한 關心이 날로 增大되어 가고 있다.

Winch는 必要—滿足の 理論을 세워 自己에게 最大의 滿足을 줄 것을 약속하는 配偶者를 選擇하게 된다<sup>27)</sup>고 하였으며 Kerckhoff와 Davis는 交際의 時間이 흐름에 따라 內婚的 要素(endogamy), 價値觀의 共感(similar personality), 異質婚的 要素(heterogamy) 등이 作用한다<sup>22)</sup>고 하였다. 또한 Edwards는 均等한 資質을 갖고 있는 男女는 同質的인 結婚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후보자들 중에서는 최대한의 보상을 줄 수 있

는 사람을 選擇하게 된다<sup>21)</sup>고 하였다. 이러한 配偶者 選擇過程은 各 段階마다 이루어야 하는 發達 段階가 存在하는 同時에 各 段階마다 解消될 수 있는 危險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男女隔離思想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儒敎文化圈의 社會는 아직 西歐의 自由 平等思想이나 男女 平等思想이 定着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父母는 물론 結婚 當事者 自身들도 配偶 選擇에 自信感을 갖고 있지 못하며 觀念과 行爲가 一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問題가 야기되고 있다.

儒敎文化圈인 日本은 明治維新 以來 西歐의 文明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經濟的 構造와 社會의 諸制度 및 倫理規範이 變化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變化는 日本 社會가 갖고 있는 傳統性에 따라 그 程度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本 研究는 이러한 變化 중에서 結婚制度가 變함에 따라 發生된 配偶者 選擇過程의 實態와 性意識의 變化에 對하여 살펴보고 이에 나타난 問題點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社會의 基本單位 集團인 家族의 生活週期는 結婚을 그 出發點으로 한다. 그러나 結婚이란 단 하루에 突然히 行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한 男子와 한 女子의 만남으로부터 結婚에 이르는 一連의 過程인 配偶者 選擇過程이 存在<sup>10)</sup>하며 이러한 過程을 時代와 社會가 要

求하는 一定한 社會 規範과 價値 意識內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즉 配偶者 選擇은 個人的 意志로 자유롭게 하여 진다고 생각되지만 事實은 意識하든 안하든 간에 社會·文化的 壓力이 作用하여 一定한 段階를 거친 後 이루어지는 것이다. 儒敎文化圈에 속하는 日本의 傳統 社會에서 家族制度는 韓國과 같이 家父長的 家族制度이었으며 이러한 家族制度의 근본으로서 무엇보다도 「家」의 維持·存續이 重要視되었고 結婚은 그것을 爲한 手段내지 隋伴現象으로 밖에는 보지 않았다. 따라서 結婚의 成立 過程보다도 그 目標내지 結果인 家結合에 보다 重點을 두었다<sup>15)</sup>. 또한 結婚 方法도 仲媒人이 있어 男女 兩家를 왕래하고 兩家 父母의 結定에 依한 結婚(見合結婚)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二次大戰後 西歐의 自由 民主的 個人主義 價値 意識의 도입에 따라 「家」의 근본이 父子中心에서 夫婦中心으로 變하고 結婚 形態 또한 仲媒結婚에서 戀愛結婚으로 變化하여 結婚에 있어 두 사람의 愛情이 重要視되었다. 結婚의 主體는 結婚 當事者들로서 選擇은 本人 스스로 하거나 第3者의 仲介로 因한 경우에는 一定期間의 交際를 거친 後 本人의 意思에 따라 決定하게 된다. 이에 따라 本人의 올바른 結婚觀과 價値觀 定立이 配偶者 選擇에 基準이 되며 나아가서 健全한 結婚生活를 營爲하는 바탕이 된다. 日本에 이러한 變化가 크게 나타나기 始作한 것은 1960年代 중반 부터로 젊은이들 사이에 데이팅(dating)이 보편화 되었으며 후반 以來 戀愛結婚(love match)이 널리 퍼져 傳統的 仲媒結婚(arranged marriage)을 능가하게 되었고 1970年代에는 配偶者 選擇(mate selection)이 새로운 研究 對象으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sup>16)</sup>. 本 研究의 目的은 日本 女大生의 配偶者 選擇과 性意識을 調査하고 健全한 結婚觀 및 性規範을 提示하므로써 앞으로 새로운 家庭의 管理者가 될 女性들에게 日本 社會에 適合한 價値觀과 行動 規範의 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같은 儒敎文化圈에 속하며 日本보다 늦게 西歐 文明을 받아들이기 始作한 우리나라의 配偶者 選擇 및 性意識의 變化를 豫見하고 바른 倫理規範을 모색하는 데 參考資料를 提示하고자 한다.

## 理論的 背景

### 1. 日本의 傳統的 結婚形態

日本은 韓國과 같이 儒敎文化圈에 속하는 나라로 傳統 社會의 結婚은 男家와 女家의 結合을 위한 것이며

結婚形態는 仲媒婚(見合結婚: arranged marriage)이 一般的이다. 有賀喜左衛門(1948)에 依하면 日本에는 婿入婚, 嫁取婚 및 親方取婚의 세가지 結婚形態가 存在한다고 하였다<sup>17)</sup>. 이 세가지의 結婚形態를 配偶者 選擇의 規點에서 보면 婿入婚은 若者組(ワカモノクミ)의 統制를 바탕으로 젊은이 自身에 의해 民主的인 選擇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親方取婚은 本家 家長의 統率 아래 男女 自由 意志가 尊重되며, 嫁取婚은 媒介者인 仲人의 援助를 얻어 家長이 配偶者를 選擇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日本의 結婚形態는 自由婚의 性格이 강한 婿入婚이 主流를 이루어 오다가 家父長制의 強化에 따라 仲媒婚인 嫁取婚이 盛行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上記와 같이 若者組가 結婚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婿入婚이외에 傳統的 意味의 自由婚도 盛行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日本에는 傳統的으로 若者仲間(ワカモノ ナガマ) 娘仲間(ムスメ ナガマ) 등이 있는데<sup>18)</sup> 이들 集團은 成年式 以後의 教育 乃至 社會的 機能을 갖고 있으며 結婚媒介者로서의 機能도 相當한다. 즉 14 ~ 15세부터 일정한 數의 未婚者 組織이 形成되고 이들 內에서 男女의 自由로운 交際에 依해 相對方이 選定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集團에서의 結婚形態는 婿入婚만이 아니라 傳統的 意味의 自由婚도 함께 盛行하였을 것이며 家父長的 家族制度가 強化됨에 따라 「仲間」組織이 弱화되고 嫁取婚이 盛行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仁祖때(1624 ~ 1625) 通信使 姜弘重은 그의 手記에서 “日本은 男女가 分別이 없고 음란한 것이 風俗이 되어 가까운 親戚끼리도 서로 情을 通하고 奸婦를 둔 집이 곳곳에 있었으며 소위 有識하다는 집에도 内外를 分別하는 範節이 없어서 음란한 行動이 많았다”<sup>19)</sup>고 記述하고 있으며, 高宗 21年(1884)에 朴戴陽은 “婚姻에 仲媒가 없으며 納幣하는 禮節도 없다. 다만 男女가 서로 보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비록 父母의 命숨이라도 따르지 않으며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즉시 서로 婚約을 맺는다”<sup>20)</sup>고 하였다. 오늘날에도 韓國과 中國에서는 新婦의 處女性이 크게 重要視되어 婚前과 婚後의 貞操를 強하게 要求하지만 日本에서는 新婦의 處女性은 크게 問題삼지 않고 婚後의 貞操만을 強要하는데 이는 日本이 婚前의 性關係는 꽤 自由스러웠으며 愛情을 中心으로 하는 結婚이 盛行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實際로 日本에서는 庶民階級の 配偶者 選擇過程을 「夜這い」(よばい)<sup>21)</sup>라고 하는데 이는 밤에 맞이한다. 밤에 연인의 잠자리에 가만히 잠입한다라는 뜻으로 自由婚의 性格이 日本 婚俗에 基層을 이루고 있

다는 것을 뒷받침 해 주는 것이다.

## 2. 結婚形態의 變化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의 傳統 古代社會에서는 若者 組 統制下에 結婚 當事者 自身이 自主的으로 配偶者를 選擇하는 婿入婚과 自由婚이 크게 盛行하다가 室町時代 以後 家父長制 家族制度가 強化됨에 따라 嫁取婚으로 變化하기 시작하였다. 男女의 隔離原則이 明治 20 年代以來 政府의 教育政策에 따라 民衆에게 普及되었고 이에 家長의 統制下에 있는 家族員이 結婚하는 경우 結婚은 當事者 個人的 問題가 아닌 家族集團의 問題로 되었다. 그 以外에도 隔離되어 있는 男女를 結婚으로까지 結合시켜야 하는 必要性 때문에 媒介者로서의 仲人이 必要하게 되었고<sup>19)</sup> 結婚의 形態는 仲人婚 또는 嫁取婚으로 變하게 되었다. 이러한 支配의 結婚 文化型에 對한 批判이 일기 시작한 것은 第一次 世界大戰後이며 그후 第二次 世界大戰을 계기로 政治·經濟·思想的 諸變化가 傳統의 家族制度에 決定的인 影響을 주어 法的으로 傳統의 家族制度가 폐지되고 새로운 夫婦 家族制度가 採用되기에 이르렀다. 新憲法 第 24 條 1 項에는 「婚姻은 兩性의 合意下에 成立되고 夫婦가 同等의 權利를 갖는 것을 基本으로 하고 相互 協力에 依해 維持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規定되어 夫婦 同權을 宣言하였고, 同條 2 項에서는 「配偶者의 選擇·財產權·相續·住居의 選定·離婚·婚姻·家族에 關한 기타 事項에 關하여서는 個人的 尊嚴과 兩性의 本質的인 平等에 立脚하여 制定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여 兩性의 本質的 平等 理念<sup>19)</sup>을 規定하였다. 이러한 憲法의 改定과 더불어 女性의 教育水準 向上, 社會進出 增加에 따라 男女의 社會的 接觸이 增大되어 男女 隔離思想이 쇠퇴하였고, 家長權이 弱화되었으며 結婚後 父母와 別居한다는 意識이 進行됨에 따라 嫁取婚은 急速히 減少하게 되었다. 이러한 現象에 對하여 Salamon (1975)은 日本의 結婚은 단순한 儀式 이기는 하지만 結婚을 成立시켜주는 仲人 (match maker)의 役割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받아들이고, 女性들은 獨立을 얻고 仲媒結婚을 피하기 위하여 점점 더 많이 일을 한다<sup>20)</sup>고 하며 女性의 社會進出과 結婚形態의 變化에 對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西歐의 個人主義·民主主義 思想의 普及은 家族에 對한 傳統의 概念을 變化시켜 核家族를 單位로 一代에 限하는 것으로 생각

하게 하였으며, 家族內의 人間關係를 親子中心의 主從 關係에서 夫婦中心의 平等關係로 變化시켰다. 이에 따라 結婚에 있어 愛情의 要素가 重要視되고 結婚形態도 戀愛婚이 一般化되어 가고 있다.

## 3. 配偶者選擇과 異性交際

### 1) 配偶者選擇過程 (mate selection)

配偶者選擇이라는 말을 日本에서 처음으로 表題에 使用한 사람은 安田三郎로 그는 配偶者選擇 研究란 “自由結婚制下에서 많은 潛在的 候補者 가운데 어떻게 配偶者를 選擇할 것인가, 그리고 그 選擇에 影響을 주는 要因은 무엇인가를 研究하는 것이다”<sup>18)</sup>라고 하였다. 男女間의 愛情과 適應性의 有無가 처음부터 問題가 되지 않는 仲媒婚과는 달리 愛情을 바탕으로 하는 戀愛結婚은 配偶者 選擇權이나 結婚의 決定權이 結婚 當事者에게 있기 때문에 配偶者選擇이 重要한 問題가 된다. 結婚 志向性이 높은<sup>17)</sup> 日本의 青年 男女들에게는 戀愛와 結婚은 하나의 目標이고 理想이기 때문에 사랑에 基礎를 둔 配偶者選擇은 現代結婚의 理想形態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配偶者選擇은 단순히 獨立的이고 測定 可能한 價値로서 一時點·一回에 이루어지는 行動이 아니고 한 쌍의 男女가 서로 알게 되고 부터 結婚에 이르기까지 어느 程度의 時間的 經過를 必要로 하는 相互作用 過程이다. 다시말해 配偶者 選擇過程은 結婚이라는 目標 達成을 向해 男女 두 사람의 關係가 어떻게 緊密한 것으로 發達되는가 하는 關係 發達의 問題인 것이다.

따라서 각 過程에는 達成되지 않으면 안되는 發達課題가 豫想되며 그 課題의 達成 程度가 關係 維持에 큰 影響을 준다<sup>11)</sup>. George Levinger (1965)는 相互作用理論 (interaction theory)에서 세 가지 概念 즉 매력 (attraction), 장애 (barriers), 선택적 매력 (alternative attraction)<sup>26)</sup>등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Adams는 Levinger의 이 理論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 매력 (original attraction), 심층매력 (deeper attraction), 結婚前 (premarriage), 結婚 (marriage)의 4 發達段階로 나누어 美國의 配偶者 選擇過程을 說明하고 있는데 각 段階는 다음 단계로 進行될 수 있는 肯定的 要因과, 關係를 해소시킬 수 있는 否定的 要因의 影響을 받으면서 進行된다고 하였다<sup>26)</sup>. Adams의 배우자선택의 발달단계는 한쌍의 男女가 date로 出發하

여 交際中에 配偶者로서의 適格性을 알아보고 結婚을 目標로 하는 求婚(courtship) 段階로 發展한 후 約婚을 하고 結婚에 도달하는 데이트과정과 같다. 데이트에서 求婚段階에로의 轉換期에 存在하는 過程으로는 私的 理解(private understanding)와 約婚(engagement)의 段階가 있는데 「私的 理解」란 確實하게 相對方에게 結婚相對라는 意思表示는 하지 않았지만 態도와 雰圍氣로 認知되어 아는 關係를 말한다. 日本에 있어 配偶者選擇過程의 各 段階에 소요되는 時間은 仲媒婚과 戀愛婚이 差異가 있는데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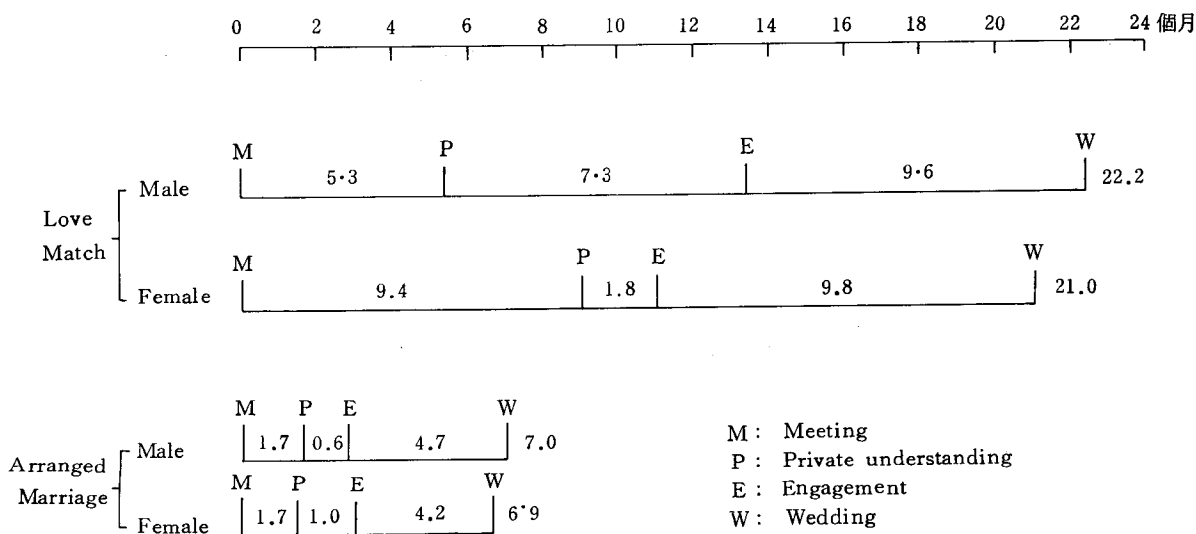
이래의 表 1에 依하면 仲媒婚의 경우 처음 만나서 結婚할 때까지 소요되는 時間은 戀愛婚에 比하여 1/3에 불과하며 私的 理解와 約婚間의 期間이 극히 짧고 約婚에서 結婚에 이르는 期間은 비교적 길다. 이와같은 理由는 仲媒婚인 경우 만날 때부터 結婚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意味의 date 期間이 存在하지 않고 짧은 時間內에 求婚段階에 도달하며, 이 段階에서도 두 사람의 關係에 特別한 장애요인이 없으면 바로 約婚을 하고 結婚에 이르기 때문이다. 戀愛婚은 性에 關係없이 交際期間은 비슷하지만 男子인 경우는 미팅에서 사적이해의 期間보다 사적이해에서 約婚의 期間이 긴데 比하여 女子는 미팅에서 사적이해의 期間이 더 긴것이 특징이다. 그 理由는 女子는 相對方에 對하여 結婚 相

對者 여부를 結定하는데 극히 많은 時間이 걸리지만 일단 結定하고 나면 바로 配偶者로 選擇하고자 하는 傾向이 強하기 때문인 것 같다. 表 1에 나타난 또 하나의 特徵은 仲媒婚과 戀愛婚을 不問하고 約婚期間이 다른 期間에 比하여 길다는 것인데 이는 데이트 보다 求婚이 훨씬 強調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데이트는 潛在的인 結婚 상대자를 만날 수 있는 機會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自己理解를 增加시키고 人間關係의 技術을 發達시키는<sup>25)</sup> 社會的 機能을 갖고 있고 이 期間동안은 다른 期間에 比하여 肯定的·不定的要因이 많이 作用하는 段階인데 반해서 約婚段階는 肯定的要因의 영향만 받고 結婚이 決定되는 단계이다. 이런 意味에서 본다면 올바른 配偶者選擇을 爲해서는 데이트기간이 求婚기간 보다 긴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2) 性意識의 變化

文明化되기 以前의 많은 原始社會에서 男女가 結婚前에 完전한 自由를 享유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事實이지만 이것은 亂交的 性行爲라기 보다는 正規의 求婚方法이거나 永續的인 關係를 확정짓기 前에 하나의 試驗이다<sup>5)</sup>. 이렇듯 性은 그 行爲에 影響을 주는 特定한 時代의 구체적 構造속에 한 行爲로 作用하게 되는데 文明以前의 비교적 自由스러웠던 性行爲는 文明社會로 變化하면서 西歐는 基督教의 思考方式에 依해,

表 1.



東洋은 儒敎思想에 依해 많은 制限을 받게 되었다. 고전적 유태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는 肉體는 극복되어야 하는 原罪의 要素가 되기 때문에 「性」은 매우 커다란 道德的 問題가 되었다. 따라서 結婚關係를 떠난 모든 性行爲는 罪가 되고 人間性墮落의 한 원리로 받아들여졌으며 父系中心의 專制的 家族習慣 또한 嚴格한 性規範을 낳게 하였다. 그러나 1791年 올랭프 데 구우지(Olympe des Gouges)에 依해 最初로 男女平等이 宣言된 이래 프랑스의 政治的 反발에 의해 일시 사라진 女性解放運動이 19세기 중엽 다시 活氣를 찾기 시작함에 따라 낭만적인 사랑과 個人的 幸福이 配偶者 選擇에 있어 重要한 要素로서 부각되었다. 그와 同時에 18세기 末期에 始作된 産業革命의 影響으로 女性이 職場에 進出하게 되고 女性들은 스스로의 社會的 意義를 自覺하기 始作하였으며 結婚도 男女의 對等한 人格을 前提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20세기에는 女性의 性에 對한 認識과 性的으로 滿足할 權利에 對한 認識도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이러한 變化와 함께 兩度 世界大戰에 依해 加速화된 都市化와 産業化는 親族集團의 붕괴와 核家族의 普遍化를 초래하고 醫學 및 避妊機術의 向上과 함께 家父長의 家族制度下에서 支持되었던 傳統的 性規範을 해체시켰다. 특히 강력한 影響력으로 등장한 商業的 性文化는 性에 對한 表現을 자유롭게 하여 性を 罪惡視하는 傳來의 價値를 소멸시키고 出產手段으로서의 性を 그 자체가 目的인 性으로 變化시켰다. 즉 이때까지 文化的 普遍性으로 禁止되어 온 婚前 性行動이 社會와 家族制度의 變化로 因하여 道德과 無關한 個人的 選擇 곧 文化的 代案으로 認識되어 가고 있다<sup>11)</sup>. 그러나 이러한 性行爲에 對한 社會 規範的 許容 程度는 性(sex)에 따라 差異가 있어 女性에 비해 男性에게 더 許容的인 二重規範(double standard)을 나타내고 있다. 美國 社會의 婚前 性交(premarital intercourse)에 對한 態度는 男性에게는 許容될 수 있으나 女性에게는 許容될 수 없는 行爲로 생각하는 二重規範의 態度가 우세하지만 이러한 傾向은 대학생과 교육을 받은 층에서 차츰 소멸되어 가서 안정된 關係(約婚段階이거나 사랑하는 사이등)에 있을 때의 婚前 性關係는 男女를 불문하고 옳다(right)고 생각하는 경향이 強해지고 있다. Reiss는 이러한 單一規範의 性態度는 대다수의 大學生을 中心으로 支配的이 되고 점차 美國 社會에 보편화될 것<sup>20)</sup>이라고 豫見하였다.

### 3) 日本의 異性交際와 性意識

「男女七歲 不同席(男女七歲にして 席を同じくせず)」의 嚴格한 男女 隔離思想이 基調를 이룬 日本社會에 近代 西歐思想이 들어오기 始作한 것은 明治時代以後이다. 個人的 尊嚴과 人間 尊重思想을 基盤으로 戀愛가 普及되고 女性教育의 증대와 勞動力 供給을 위한 女性의 職場進出등의 要因으로 男女平等의 氣運이 發芽하기 시작하여 自由戀愛가 하나의 流行이 되었다. 그러나 昭和時代(1920) 이후 世界恐慌과 戰爭의 連續으로 國家 統制가 增加하게 되어 結婚도 人口增殖의 目的으로 이루어지고 戀愛도 없어지게 되었다<sup>7)</sup>. 그후 1948年 新憲法의 制定과 더불어 法的으로 男女의 差別이 없어지고 否定的으로 보았던 戀愛結婚이 다시 一般化되고 義務教育을 中心으로 한 男女共學의 普及, mass-com.을 통한 男女 平等思想의 보급으로 結婚前의 異性交際 즉 데이트가 社會적으로 認定받게 되었다. 異性交際는 그 자체가 레크리에이션일 뿐 아니라 親子(父母-子女)關係에서 心理적으로 獨立을 하려는 自立의 상징이며 status를 決定해 주고 性行爲를 통하여 thrill을 맛보게 해주는 役割<sup>12)</sup>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青年 男女는 結婚을 前提로 하거나 前提로 하지 않거나 異性交際를 하게되며, 이를 통하여 異性を 보는 눈을 養成하고 配偶者 選擇의 能力을 높게 된다. 그러나 아직 異性交際에 對한 rule이나 manner가 定立되어 있지 못하고 性規範이 確立되어 있지 못한 日本은 이에 對한 逆機能이 社會的 問題가 되고 있다. 美國에서는 異性交際의 過程에 따라 性行爲가 相異한데 보통 데이트 段階(the casual dating period)에서는 good-night kiss를 하며 진지한 데이트 段階(the period of steady-dating)에서는 포옹(necking)이나 가벼운 팻팅(petting)을, 約婚前 段階(the preengagement dating period)에서는 정도가 깊은 팻팅(heavy petting)을 한다. 그러나 일단 約婚을 하게 되면 性交(premarital sexual intercourse)가 비교적 自由스럽게 이루어 지는데<sup>14)</sup> 특히 性解放運動(the free-sex movement)이 一般적으로 受容됨에 따라서 愛情이 있는 婚前 性交가 점차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日本에서도 男女平等思想의 보급에 따라 婚前 性交에 대한 傾向이 널리 관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性規範이 定立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觀念과 行爲의 差異에서 오는 갈등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性行爲에 對한 態度는, 어

던 狀況에서도 婚前 性交는 男女 모두 나쁘다는 禁欲主義的 態度(abstinence)와 男子에게는 許容되지만 女子에게는 許容되지 않는 二重 規範的 態度(double standard), 애정이 있거나 約婚한 關係라만 男女 모두 무관하다는 許容的 態度(permissiveness with affection), 그리고 愛情이나 現在の 段階에 關係없이 육체적 매력을 준다면 男女 모두 옳다는 태도(permissiveness without affection)<sup>24)</sup>等 4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늘날 日本은 위의 4 가지 性態度가 모두 存在하여 性態度에 對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1973年 총리부에서 실시한 青年意識에 對한 國際比較 調査<sup>9)</sup>에 依하면 日本 青年 男女의 경우 愛情이 있으면 상관없다는 許容的 態度가 支配的이며 특히 女性의 경우는 純潔에 對한 意識이 매우 감소하고 있다(婚前 性交에 對한 許容的 態度: 1948年 13%, 1973年 60%) 그리고 現代 青年의 性意識에 關한 보고에 依하면 異性 交際에 따른 性行爲의 程度를 모른다고 答한 경우가 支配的이었던 바, 이러한 경향은 成人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價値體系의 變動期에 있어 性行爲에 對한 規範과 態도의 混亂이 當事者뿐만 아니라 成人에게도 야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研究對象 및 調査方法

#### 1. 調査道具

本 研究에 使用된 調査道具(質問紙)는 美國 California State Univ의 Chiharu Kawai가 碩士學位 論文에서 쓴 것으로 총 25問項으로 구성된것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 2. 調査對象 및 資料蒐集

日本 大阪에 所在하고 있는 3個大學(梅花短期大學, 大阪大學, 大阪市立大學)의 未婚女子大學生을 對象으로 하였으며 調査期間은 1981年 11月 11일부터 19

表 1-1. 父母의 結婚形態와 子女의 希望結婚形態

(%)				
결혼 형태	仲媒婚	戀愛婚	無應答	計
父 母	109 (61.6)	59 (33.3)	9 (5.1)	177 (100)
子 女	67 (37.9)	107 (60.5)	3 (1.7)	177 (100)

일까지이고 總 配付한 質問紙는 200部였고 그 중 回收된 것은 181部이며 이 중 本 研究의 要求條件에 不합되지 않은것을 제외한 177部만을 사용하였다.

#### 3. 資料 處理

回收된 質問紙는 SPSS BATCH SYSTEM으로 統計處理하였으며 使用된 統計處理方法은 백분율과  $\chi^2$  檢證이다.

### 結果 및 分析

#### 1. 結婚 形態

結婚 形態는 父母의 結婚 形態와 子女의 希望 結婚 形態, 理由, 父母와 子女의 結婚 形態의 相關 關係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 (1) 父母의 結婚形態와 子女의 希望結婚形態

表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父母의 結婚 形態는 仲媒婚이 61.6%로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子女의 希望 結婚 形態는 仲媒婚이 37.9%, 戀愛婚이 60.5%로 結婚 形態의 變化 程度를 알 수 있다. 子女(女大生)의 希望結婚 形態는 1949年의 調査<sup>15)</sup>와 1955年을 前後하여 結婚한 東京 婦人의 약 70%가 仲媒婚인 것으로 보아 해방직후 自由 民主主義에 의한 教育의 影響으로 仲媒婚이 男女不平等의 한 表現이며 前近代의인 結婚 形態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나타난 一時的 現象이라 하겠다. 그리고 湯澤雍彦의 女大生의 配偶者選擇 手段<sup>17)</sup> 調査에서도 日本의 結婚形態의 變化는 1960年代에 급격히 변하였고 그 以後는 傳統的 結婚形態와 調和를 이루며 극히 완만히 戀愛婚의 形態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父母의 結婚形態와 子女의 結婚形態와의 關係

응답자 165명의 調査 結果에 依하면 父母의 結婚 形態와 子女의 希望結婚 形態와는 有意한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父母의 結婚 形態가 仲媒婚이면 子女의 希望結婚 形態도 仲媒婚이고 父母의 結婚 形態가 戀愛이면 子女의 希望結婚 形態도 戀愛婚인 傾向이 強하다.

##### (3) 仲媒婚을 希望하는 理由

仲媒婚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戀愛結婚을 할 自信이나 機會가 없기 때문에 仲媒婚을 希望하는 경우가 5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配

表 1-2. 父母의 結婚形態와 子女의 希望 結婚形態와 의 關係

( )%

父母 \ 子女	子女		計
	仲媒婚	戀愛婚	
仲媒婚	49 (46.2)	57 (53.7)	106 (100)
戀愛婚	14 (23.7)	45 (76.3)	59 (100)

$X^2 = 8.1 \quad df = 1 \quad P < .05$

偶者는 父母가 選擇해 주는 것이라는 傳統的 思考와 愛情보다는 條件을 重要視하는 경우가 各各 19.4%의 비율을 나타냈다. 仲媒婚의 理由中 自信이나 機會가 없는 理由가 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男女를 社會的으로 隔離시켜온 日本의 傳統性으로 異性交際의 文化(데이트 문화)가 아직 定着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異性交際와 配偶者選擇의 元만한 發達過程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스스로 配偶者를 選擇하는 戀愛結婚에 自信이 없어서 나타난 現象이다. 그러므로 日本은 性非行과 기타 問題行動을 유발하는 데이트의 逆機能을 防止하고 異性에 對한 理解와 配偶者 選擇能力을 養成하는 데이트 본래의 學習機能이 충분한 發揮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 바른 道德 基準를 세우고 데이트 文化를 育成하는 努力이 必要하다.

表 1-3. 仲媒婚 希望理由

希望理由	N	%
연애결혼의 자신이나 기회가 없어서	37	55.2
어른들의 의견을 존중하므로	13	19.4
조건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13	19.4
기 타	4	6.0
計	67	100.0

(4) 戀愛婚을 希望하는 理由

戀愛婚을 希望하는 理由는 自身の 配偶者는 스스로 選擇하고 또 그러한 相對가 좋다는 생각이 72.6%로 支配의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結婚이란 두 사람의 愛

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結婚에 대한 本人의 責任을 나타내는 것이다.

表 1-4. 戀愛婚 希望理由

希望理由	N	%
연애를 동경하므로	5	4.7
자신이 선택한 상대가 좋다고 생각해서	77	72.6
연애결혼의 경우가 자연스러워서	22	20.9
기 타	3	1.9
計	107	100

2. 結婚에 對한 態度

結婚에 對한 態度는 結婚 志向性·結婚理由·希望結婚形態와 結婚 理由와의 상관계·結婚年齡·交際期間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結婚 志向性

表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應答者가 結婚을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는 日本의 青年男女의 結婚志向性이 높다는 사실을 잘 뒷받침 해 주고 있는 것이다. 日本이 이렇듯 結婚志向性이 높은 原因은 日本女性 特有的 結婚觀 때문이다. 즉 總理府의 意識調査에 따르면 女子의 幸福은 結婚에 있다가 40%, 精神的·經濟的으로 安定된다가 21%, 人間으로서 當然 하다가 20%의 順으로 既婚·未婚를 불문하고 結婚志向性이 강하며 自立할 能力이 있으면 結婚 안해도 좋다가 13%에 지나지 않는다<sup>6)</sup>.

表 2-1. 結婚 志向性

結婚 志向性	N	%
결혼하고 싶다	167	94.4
하고 싶지 않다	4	2.3
기 타	6	3.4
計	177	100

(2) 結婚 理由

結婚을 원하는 理由를 살펴보면 自身の 精神的 安定을 위하여가 41.9%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이



父母의 權威에서 獨立하여 自身の 理想的인 家庭을 이루기 위해서가 24.0%, 子孫을 남기기 위해서가 10.2%이며 上記 세가지 理由를 합하면 76.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結果에 따르면 日本 女大生은 傳統的인 結婚觀에 따라 「家」의 계승이나 번영에 對한 意識은 희박하며 오히려 結婚을 自身들의 問題로 強하게 認識하여 結婚에 依해 精神的 安定을 얻고 서로 協力하여 이상에 맞는 家庭을 構築하고 子孫을 낳겠다는 생각이 支配的이다. 그리고 性的 滿足·經濟的 安定·日常生活의 便宜등 物質的 측면의 結婚이유는 12%로 극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精神的 安定·理想的인 家庭 構築·子孫의 存續等 形以上の인 측면이 76.1%의 비율을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같은 現象은 1972年 全國 15~24세의 未婚男女를 對象으로 生殖觀·經濟觀·性欲觀·便宜觀·社會觀·

精神觀·家庭觀 등의 項目으로 나누어 調査<sup>1)</sup>한 結果와 유사하다. 結婚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4名으로 應答者의 2.3%에 불과하여 一般化시키기는 어렵지만 制度에 얽매이지 않고 自身の 個人的 生活에 充實하고자 함을 그 理由로 들고있다.

(3) 希望結婚形態와 結婚理由와의 關係

仲媒婚을 希望하는 理由中에 條件이 좋은 사람과 結婚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仲媒婚을 希望하는 사람이 보다 物質的이고 經濟的이며 戀愛婚을 希望하는 사람은 보다 精神的이고 理想的인 일 것이라는 것을 假定할 수 있다. 그런데 본 調査 結果에 따르면 희망하는 結婚形態와 結婚理由와는 有意한 差가 없는데 이는 日本 青年 男女의 結婚 理由는 希望하는 結婚形態와는 상관없이 形以上の인 면을 追求하는 傾向이 強하기 때문인 것 같다.

(4) 結婚 年齡

日本 女大生이 希望하는 結婚 年齡은 25세 (28.8%), 23세 (20.3%), 24세 (19.2%)의 順이고 平均 結婚 年齡은 24.4세로 일반적으로 女性의 結婚 適齡期라고 稱하는 22세에서 25세 사이에 74.5%가 集中되어 있다. 1973年 總理府가 調査<sup>1)</sup>한 바에 따르면 當事者는 結婚 適齡期를 그다지 重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上記의 結果같이 希望하는 結婚 年齡이 22세에서 25세에 集中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비록 당사자는 적령기를 重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하더라도 家族이나 社會의 結婚 적령기에 對한 壓力이 아직도 強하게 作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意識하여 일어난 現象이라 하겠다.

(5) 結婚을 前提로 한 交際期間

結婚을 前提로 할 경우 交際期間은 1년에서 2년이

表 2-2. 結婚理由

結 婚 理 由	N	%
자신의 자손을 남기기 위하여	17	10.2
경제적으로 안정하기 위하여	8	4.8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3	1.8
일상생활이 편리하므로	1	0.6
사회적으로 신용을 얻기 위하여	4	2.4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70	41.9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상적인 가정을 위해	40	24.0
결혼을 동경하기 때문에	13	7.8
모두 결혼하니까	5	3.0
기 타	6	3.6
計	167	100

表 2-3. 希望結婚形態와 結婚理由와의 關係

( )%

결혼이유 결혼형태	자 손 의 속	경 제 적 정	성 적 만 족	일상생활의 편	사 회 적 용	정 신 적 정	가 정 구 축	결 혼 동 경	모 두 하 므 로	計
중매혼	8 (13.1)	3 (4.9)	1 (1.6)	0 (0 )	0 (0 )	25 (41.0)	17 (28.0)	6 (9.8)	1 (1.6)	61 (100)
연애혼	9 ( 9.2)	5 (5.1)	2 (2.0)	1 (1.0)	4 (4.1)	43 (43.9)	23 (23.5)	7 (7.1)	4 (4.1)	98 (100)
計	17 (10.7)	8 (5.0)	3 (1.9)	1 (0.6)	4 (2.5)	68 (42.8)	40 (25.2)	13 (8.2)	5 (3.1)	159 (100)

$X^2 = 4.3 \quad df = 8 \quad P > .05$

表 2-5. 結婚年齡

( )%

결혼연령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무응답	計
백분율	3 (1.7)	11 (6.2)	36 (20.3)	34 (19.2)	51 (28.8)	12 (6.8)	8 (4.5)	5 (2.8)	1 (0.6)	1 (0.6)	15 (8.5)	177 (100)

表 2-6. 結婚을 前提로 하는 交際 期間

% ( )

기간 (個月)	6	12 (1년)	13~18	19~24 (2년)	25~30	36 (3년)	48 (4년)	60 (5년)	무응답	計
백분율	3 (1.7)	51 (28.8)	17 (9.6)	50 (28.2)	12 (6.8)	26 (14.7)	3 (1.7)	4 (2.3)	11 (6.2)	177 (100)

表 3-1. 配偶者 選擇條件

( )%

條件 \ 程度	매우중시	비교적중시	그다지중시않음	전혀중시않음	計
성격·인격	157 (88.7)	20 (11.3)	0 (0)	0 (0)	177 (100)
용모·외모	3 (1.7)	89 (50.3)	84 (47.5)	1 (0.6)	177 (100)
학 력	7 (4.0)	116 (65.5)	51 (28.8)	3 (1.7)	177 (100)
수 입	26 (15.3)	113 (63.8)	37 (20.9)	0 (0)	177 (100)
집 안	6 (3.4)	41 (23.2)	109 (61.6)	21 (11.9)	177 (100)
직 업	24 (13.6)	91 (51.4)	60 (33.9)	2 (1.1)	177 (100)
애 정	128 (72.3)	49 (27.7)	0 (0)	0 (0)	177 (100)
취미·종교의일치	8 (4.5)	58 (32.8)	101 (57.1)	10 (5.6)	177 (100)
연 령	4 (2.3)	59 (33.3)	106 (59.9)	8 (4.5)	177 (100)
장 래 성	36 (20.5)	110 (62.5)	29 (16.5)	1 (0.6)	177 (100)
건 강	110 (62.1)	61 (34.5)	6 (3.4)	0 (0)	177 (100)
양친의찬성	39 (22.0)	112 (63.3)	24 (13.6)	2 (1.1)	177 (100)
생활환경	32 (18.1)	122 (68.9)	23 (13.0)	0 (0)	177 (100)
동 정 성	3 (1.7)	20 (11.5)	96 (55.2)	55 (31.6)	177 (100)
동 민 족	36 (20.3)	63 (35.6)	61 (34.5)	17 (9.6)	177 (100)

74.4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結婚觀

結婚觀은 配偶者 選擇條件·結婚과 사랑과의 關係·父母의 評價에 對한 態度·父母의 反對에 對한 態度·結婚觀과 結婚 形態와의 關係等 5 項目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1) 配偶者 選擇條件

配偶者의 選擇條件중에서 매우 重要하게 생각되는 項目은 性格과 人格(88.7%), 愛情(72.3%), 健康(62.1%)의 項目이며 비교적 重要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生活環境(68.9%), 學力(65.5%), 收入(63.8%), 兩親의 贊成(63.3%), 獎奬性等的 項目으로 양친의 찬성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앞으로의 經濟水準과 將來性에 關係가 있는 項目들이다. 그리고 그다지 重要하게 생각하지 않는 항목이 집안·연령·취미와 종교의 일치등이며 전혀 重要하게 생각하지 않는 項目은 童貞性·집안·同民族 그리고 시부모와의 同居等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綜合해 보면 日本 女大生들이 가장 重要하게 생각하는 配偶者 選擇條件은 性格·人格·愛情·健康等 相對方의 內面的인 면이며, 그 다음이 結婚後 經濟的 安定과 將來性을 내다보는 것이다. 이와같은 경향은 1973 年 女子大學生 321 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武俊의 調査 結果<sup>20)</sup>와도 매우 유사한데 다만 童貞性에서만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氏의 結果에 따르면 童貞性的의 경우 本 調査 結果에 比하여 더 保守的인 傾向이 強하였다. 이와같이 配偶者의 選擇條件이 모든면에서 1973 年 調査 結果와 類似하지만 童貞性에 있어서 時間이 지남에 따라 보다 開放的으로 變化한 것은 日本의 傳統文化 자체가 性에 對하여 비교적 관용적이기 때문에 性的 開放을 수용하기가 容易한데서 비롯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2) 結婚과 사랑과의 關係

傳統的인 結婚에서는 重要的인 條件이 되지 못했던 愛情이 現代의 青年 男女에게는 매우 重要的인 條件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結婚에 사랑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4.4 %인데 비하여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불과 0.6 %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이 結婚의 條件에 重要的인 項目이기는 하지만 前提 條件은 못되며 結婚해서 만들어 가

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32.8 %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日本 女大生の 結婚에 對한 傳統性을 엿볼 수 있다.

表 3-2. 結婚과 사랑과의 關係

결혼과 사랑	N	%
사랑은 결혼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112	64.4
사랑은 결혼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1	0.6
사랑은 결혼해서 두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57	32.7
기 타	4	2.3
計	174	100

(3) 父母의 評價에 對한 態度

日本 女大生은 結婚 相對方에 對한 父母의 評價에 對하여 尊重하는 편이다.

表 3-3. 父母의 評價에 對한 態度

부모의 평가에 대한 태도	N	%
매우 존중한다	7	4.0
존중한다	121	68.4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다	49	27.7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0	0
計	177	100

(4) 父母의 反對에 對한 態度

父母가 反對하는 사람과 結婚할 勇氣가 있는지의 여부에 對하여 그 때가 되어보아야 안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53.1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反對해도 結婚하겠다는 사람이 28.0 %, 反對하면 안한다는 사람이 19.8 %로 結婚에 對한 父母

表 3-4. 父母의 反對에 對한 態度

부모의 반대에 대한 태도	N	%
부모님이 반대해도 결혼한다	49	28.0
부모님이 반대하면 결혼하지 않는다	33	18.9
그때가 되어보아야 안다.	93	53.1
計	175	100.0

의 結定權에 對한 限界가 뚜렷하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4. 結婚觀과 希望結婚態度와의 關係

(1) 配偶者 選擇 條件과 結婚形態

配偶者 選擇條件中 「매우 중시한다」는 4점, 「비교적 중시한다」는 3점,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는 2점, 「전혀 중시하지 않는다」는 1점으로 하여 15문항 합계 최고 60점에서 최저 15점까지의 점수

간격 45점을 2等分하면 22.5점이 된다. 여기에 최저 점수 15점을 더하면 37.5점이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60점에서 38점을 保守的, 37점에서 15점을 開放的으로 보고 이 開放性 程度와 希望結婚態度와의 關係를 살펴 보았다.

表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希望하는 結婚形態와 配偶者 選擇條件과는 매우 높은 有意한 關係가 있다.

즉 仲媒婚을 希望하는 사람은 保守的인 傾向이 強하며 戀愛婚을 希望하는 사람은 開放的인 傾向이 強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戀愛婚인 경우에는 다른 條件보다도 愛情이 가장 重要한 配偶者 選擇條件이 되는데 比해 仲媒婚은 愛情 以外的 다른 條件들도 重視하는 傾向이 높기 때문이다.

表 4-1. 配偶者 選擇條件과 結婚形態와의 關係

( )%

결혼형태 \ 개방성	보수적	개방적	計
중 매 혼	66 (98.5)	1 (1.5)	67 (100)
연 애 혼	91 (85.0)	16 (15.0)	107 (100)
計	157 (90.2)	17 (9.8)	174 (100)

$X^2 = 8.48 \quad df = 1 \quad P < .01$

(2) 結婚에 있어 사랑에 對한 態度와 希望結婚形態와의 關係

結婚에 있어 사랑에 對한 態度와 希望하는 結婚形態와의 關係는 極히 有意한 關係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仲媒婚을 希望하는 사람은 사랑은 結婚後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傳統的 觀念이 強한데 比해 戀愛婚을 希望하는 사람은 結婚에 있어 사랑을 필수 불가결한 條件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強하다.

表 4-2. 사랑과 結婚形態와의 關係

( )%

결혼형태 \ 사랑에 대한 태도	필수불가결한것이다	필요 없다	결혼후 만드는것이다	計
중 매 혼	33 (51.6)	1 (1.5)	30 (46.9)	64 (100)
연 애 혼	79 (74.5)	0 (0)	27 (25.5)	106 (100)
計	112 (65.9)	1 (0.6)	57 (33.5)	170 (100)

$X^2 = 9.64 \quad df = 2 \quad P < .01$

表 4-3. 父母의 評價에 對한 態度와 希望結婚形態와의 關係

( )%

부모의 평가에 대한태도 \ 결혼형태	매우중중한다	중 중 한다	그다지중중하지 않는다	전혀 중중하지 않는다	計
중 매 혼	5 (7.5)	45 (67.1)	17 (25.4)	0 (0)	67 (100)
연 애 혼	2 (1.9)	74 (69.2)	31 (28.9)	0 (0)	107 (100)
計	7 (4.0)	119 (68.4)	48 (27.6)	0 (0)	174 (100)

$X^2 = 3.39 \quad df = 3 \quad P > .05$

表 4-4. 父田의 反對에 對한 希望 結婚形態와의 關係

( ) %

부모의 반대 대한태도 결혼형태	결 혼 한 다	결혼하지 않는다	그때가서결정한다	計
중 매 혼	9 (13.4)	18 (26.9)	40 (59.7)	67 (100)
연 애 혼	39 (37.1)	15 (14.2)	51 (48.7)	105 (100)
計	48 (28.0)	33 (19.1)	91 (52.9)	172 (100)

$X^2 = 11.15 \quad df = 2 \quad P < .01$

(3) 父母의 評價에 對한 態도와 希望 結婚 形態와의 關係

結婚 相對者에 對한 父母의 評價에 對한 態도와 子女의 希望하는 結婚 形態와는 有意한 關係가 없다.

(4) 父母의 反對에 對한 態도와 希望 結婚 形態와의 關係

子女의 希望 結婚 形態와 父母의 反對에 對한 態度와는 매우 높은 有意한 關係가 있다. 즉 仲媒婚을 希望하는 사람은 父母의 反對에 對하여 消極的인 態度를 보이지만 戀愛婚을 希望하는 사람은 父母의 反對에 對하여 극히 積極的인 態度를 보이는 傾向이 強하다.

5. 異性 交際

異性 交際에 對한 態度 · 異性 交際의 機會 · 配偶者 選擇의 自信 程度등 3項目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異性 交際에 對한 態度

結婚前에 可能한 限 많은 男性과 사귀고 싶다가 79.3%로 매우 積極的인 態度를 나타내고 있다. 본래 異性 交際(데이트)는 特定한 相對를 決定하지 않고 누구하고도 自由스럽게 交際하는 것으로써 그 自體에 獨特한 自己完結的 特質을 갖고있으며 오락의 目的도 갖고 行하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積極的인 態度를 보이는 것이다.

(2) 異性 交際의 機會

結婚前 異性交際에 對하여 매우 積極的인 態度를 나타낸 日本 女大生은 실제로 異性을 사귄수 있는 機會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傾向이 強하다.

(3) 配偶者 選擇의 自信

結婚 相對者를 發見할 自信이 있는가라는 質問에 對하여 모르겠다고 答한 경우가 67.8%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比하여 自信이 있다고 答한 경우는 20.9%에 불과하다. 데이트가 처음부터 特定한 相對를 決定하여 交際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몇 개의 段階를 거쳐 結婚에 이르는 可能性을 갖고 있다면 本女大生은 異性 交際과 戀愛婚에 對한 指向性은 높지만 실제로 이에 對한 自信이나 機會가 없다고 생각하는 傾向이 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데이트에 對한 뚜렷한 規範이나 價值 意識이 定立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表 5-1. 異性 交際에 對한 態度

이성 교제에 대한 태도	N	%
결혼전에 가능한한 많은 남성과 사귀고 싶다	138	79.3
결혼전에 많은 남성과 사귀고 싶지 않다	36	20.7
計	174	100.0

表 5-2. 異性 交際의 機會

이성교제의 기회	N	%
많은 남성과 사귄 기회가 있다	73	42.0
많은 남성과 사귄 기회가 없다	101	58.0
計	174	100.0

表 5-3. 配偶者 選擇의 自信

배우자선택의 자신여부	N	%
자 신 있 다	37	20.9
자 신 없 다	20	11.3
모 르 겠 다	120	67.8
計	177	100.0

6. 性 開放性

性 開放性에 對한 態度는 婚前性交에 對한 態度·性的 行爲의 許容範圍·同居에 對한 態度·노출의상에 對한 態度等 4 項目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1) 婚前 性交에 對한 態度

日本 女大生の 婚前 性交에 對한 態度는 婚前 性交을 肯定하는 경우가 56.3%, 否定하는 경우가 42.8%로 肯定하는 경우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婚前 性交은 絶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傳統的 意味의 純潔意識은 12.4%에 불과한데, 이는 1973년 總理府에서 調査한 39%에 비하여 훨씬 弱化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日本 女大生の 性에 對한 許容의 態度는 단순히 性欲을 充足시키는 것을 意味하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婚前 性交을 肯定하는 경우 중에서 愛情이 결부되는 경우가 89%나 되어, 觀念으로서의 性的 自由化는 어느정도 擴大되어 있지만 完全 愛情 否定論에 입각한 性的 自由化는 아닌것으로 보인다.

表 6-1. 結婚性交에 對한 態度

婚前性交에 對한 態度	N	%
상대를 보다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10	5.8
정신적 사랑이 보다 중요하므로 하지 않는 편이 좋다	52	30.4
絶대로 해서는 안된다	21	12.4
애정만 있다면 상관없다	83	48.5
기 타	5	2.9
計	171	100.0

(2) 性的 行爲의 許容 範圍

戀愛期間중 性的 行爲에 對한 許容程度는 키스·패팅·性交等 肉體的 接觸을 許容하는 경우가 93.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가 키스등 가벼운 接觸만을 許容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 패팅을 許容하는 경우가 性交를 許容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日本에 패팅이 一般化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키스에서 바로 性交의 段階로 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現象으로 보인다.

表 6-2. 性的行爲의 許容範圍

성적행위의 허용범위	N	%
악수·포옹	11	6.8
키스 (kissing)	83	51.6
패팅 (petting)	21	13.0
性 交	46	28.6
計	161	100.0

(3) 同居에 對한 態度

同居에 對한 日本 女大生の 態度는 극히 否定的이어서 82.5%가 사랑하는 남성과 동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表 6-3. 동거에 대한 태도

동거에 대한 태도	N	%
동 거 한다다	30	17.5
동 거 안 한 다	141	82.5
計	171	100.0

(4) 노출의상에 對한 態度

여름 노출의상에 對한 태도는 극히 許容的이어서 품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1%에 불과하다. 日本 女大生の 의상에 對한 態度는 美的인 面이나 實用的인 面으로 생각하는 傾向이 強하며 性에 따라 구별되어야 한다는 意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表 6-4. 노출의상에 대한 태도

노출의상에 대한 태도	N	%
관 제 없 다	42	23.7
입는 사람에게 어울리면 좋다	125	70.6
품위가 없다고 생각한다	9	5.1
기 타	1	0.6
計	177	100.0

7. 性 開放性과 希望 結婚形態

(1) 婚前 性交에 對한 態度와 希望 結婚 形態와의 關係

表 7-1. 婚前性交에 對한 態度와 希望結婚形態와의 關係 ( )%

혼전성교에 대한 태도 결혼형태	필요하다	하지 않는다	절대로 안된다	애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計
중매혼	1(1.5)	28(45.2)	12(19.4)	21(33.9)	62(100)
연애혼	9(8.7)	24(23.0)	9(8.7)	62(59.6)	104(100)
計	10(6.0)	52(31.3)	21(12.7)	83(50.0)	166(100)

$X^2 = 17.91$   $df = 3$   $P < .01$

表 7-2. 性的行爲의 허용범위와 希望結婚形態와의 關係 ( )%

허용범위 결혼형태	악수·포옹	키스	펫팅	성교	計
중매혼	8(13.8)	38(65.5)	5(8.6)	7(12.1)	58(100)
연애혼	3(2.9)	45(43.7)	16(15.5)	39(37.9)	103(100)
計	11(6.8)	83(51.6)	21(13.0)	46(28.6)	161(100)

$X^2 = 19.87$   $df = 3$   $P < .01$

婚前性交에 對한 態度와 希望하는 結婚形態 間에는 매우 有意한 關係를 갖고 있다. 戀愛婚을 希望하는 사람이 仲媒婚을 希望하는 사람보다 婚前性交에 對하여 極히 開放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2) 性的行爲의 許容範圍와 希望結婚態度와의 關係

戀愛期間중 性的行爲의 許容範圍와 希望하는 結婚形態와는 매우 有意한 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즉 仲媒婚을 希望하는 사람보다 戀愛婚을 希望하는 사람이 性的行爲의 許容範圍가 더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다.

(3) 同居에 對한 態度와 希望結婚態度와의 關係

同居에 對한 態度와 希望하는 結婚形態와는 매우 有意한 關係가 있다. 즉 戀愛婚을 希望하는 사람이 仲媒婚을 希望하는 사람보다 더 許容的인 態度를 보인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性開放性과 希望結婚形態와의 關係는 모든 項目에서 매우 有意한 差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戀愛婚을 希望하는 사람이 더 增加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日本女大生の 性에 對한 態度도 더욱 開放的이 될 것이라는 것을 豫見할 수 있다.

表 7-3. 同居에 對한 態度와 希望結婚形態와의 關係 ( )%

동거여부 결혼형태	동거한다	동거안한다	計
중매혼	7(10.8)	58(89.2)	65(100)
연애혼	23(21.7)	83(78.3)	106(100)
計	30(17.5)	141(82.5)	171(100)

$X^2 = 7.64$   $df = 1$   $P < .01$

8. 性開放性과 父母의 養育態度와의 關係

性開放性과 父母의 養育態度와의 關係는 本人이 希望하는 結婚形態와의 關係와는 달리 어느 項目에서도 有意한 差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理由는 性開放性에 對한 態度는 二次大戰後 西歐의 自由·民主思想과 더불어 男女平等思想·女性解放思想 등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家庭內의 父母 役割보다는 社會·經濟的 要因이 더 크게 作用하여 야기된 現象이라 하겠다. 그러나 家庭의 機能이 점차 社會에로 移讓되면서 家庭內의 人間關係가 더욱 강조되는 現代社會에서 子女 養育을 통한 文化 傳達의 機能이 弱化되어 간다는 것은 現代 家庭의 問題로서 注目해야 할 일이다.

다.

9. 男性에 對한 態度

(1) 男性의 女性觀에 對한 態度

일반적으로 男性은 女性의 內面的인 마음보다도 外  
 的인 용모를 重要視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對해 그  
 릇된 생각이라고 보는 傾向이 支配的이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32.2 %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  
 고 있어 男性을 보는 女性의 態度에 傳統性이 잔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表 9-1. 男性의 女性觀에 對한 態度

남성에 여성관에 대한 태도	N	%
남성의 기분을 생각하면 당연하다.	54	32.2
말 도 안 된 다.	61	36.3
유 치 하 다 고 생 각 한 다	38	22.6
기                          타	15	8.9
計	168	100.0

(2) 對話時 男性 意識態도와 그 理由

對話할 때 男性을 의식하는가에 對한 質向에 72.4  
 %가 의식한다고 하였으며 그 理由는 男性 優位의 傳  
 統思想에서가 아니고 女性이기 때문에 異性에 對한 자  
 연스러운 기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96.9 %로 支  
 配的이다.

(3) 「女性답다·性的 매력있다」라는 말에 對한 態度

男性으로 부터 「여성답다·성적 매력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  
 며,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3.5 %에 지나지 않  
 다.

(4) 希望하는 女性像

表 9-4의 分析 結果에 따르면 日本 女大生은 知的  
 으로 우수한 여성이기 보다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女性  
 이거나 賢母良妻형의 傳統的인 女性像<sup>註1)</sup>을 더 希望  
 하고 있다. 또 1972年 總理府의 調査<sup>15)</sup>에 따르면 男

註1) 日本은 흔히 “男は度胞, 女は愛嬌”(남자는 배짱, 여자는 애교)로 男女의 특징짓는다.

表 9-3. 「여성답다·性的 매력있다」라는 말에 對한 態度

「여성답다 성적매력이 있다」 라는 말에 대한 태도	N	%
매우 기쁘다.	123	71.5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다.	19	11.0
그런 남성은 불쾌하게 생각한다.	6	3.5
관심밖으로 생각한다.	13	7.6
기                          타	111	6.4
計	172	100.0

性은 부드러운 女性보다는 강한 女性을 希望하는데 비  
 하여 女性은 강한 女性보다는 부드러운 女性이기를 원  
 하고 있다. 즉 日本 女大生은 傳統的 意味의 女性답기  
 를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답다」는 말에도 매우  
 好意的인 態度임을 알 수 있다.

表 9-4. 希望하는 女性像

희망하는 여성상	N	%
성적 매력이 있는 여성	2	1.2
귀엽고 사랑스런 여성	103	59.9
현모양처형의 여성	27	15.7
지적으로 유능한 여성	30	17.4
여자임을 의식하지 않는 여성	6	3.5
기                          타	4	2.3
計	172	100.0

(5) 本人이 생각하는 自身の 타입

本人이 생각하는 自己像에 對하여 살펴보면 男子에  
 게 먼저 말을 거는 능동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경  
 우는 8.3 %에 불과한데 비하여 男子가 먼저 말을 걸  
 어 올 때까지 기다리는 受動的인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80.5 %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와같은 結果는 表 9-3과 表 9-4에 나타난 結果와 더불어 日本 女大生은 性差에 對한 意識이 極히 強하게 存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9-5. 本人이 생각하는 자신의 타입

本人이 생각하는 自己象	N	%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여성	14	8.3
남자가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여성	136	80.4
전혀 남자에게 관심이 없는 여성	4	2.4
기 타	15	8.9
計	169	100.0

(6) 夫婦 平等에 對한 態度

夫婦의 平等에 對한 態度는 役割 分擔 때문에 平等할 必要가 없다가 58.3%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

表 9-6. 夫婦 平等에 對한 態度

부부의  평등에  대한 태도	N	%
모든 면에서  평등하게 되는 것에 찬성	21	12.0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등할 필요가 없다.	102	58.3
생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등할 수 없다.	27	15.4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편이 좋다.	19	10.9
기 타	6	3.4
計	175	100.0

고, 생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등할 수 없다가 15.4%, 남편에게 順從하는 편이 좋다가 10.9% 등 夫婦의 平等을 否定하는 態度가 84.6%로 支配的이며 모든 면에서 平等해야 된다는 夫婦 平等에 積極的인 態度는 12.0%에 불과하다. 즉 日本 女大生의 夫婦 役割에 對한 態度는 極히 保守的임을 알 수 있다.

10. 男性에 對한 態度와 希望 結婚 形態와의 關係

男性에 對한 態度의 希望하는 結婚 形態와의 關係는 夫婦 平等에 對한 態度에서만 有意한 差를 나타내었다.

夫婦 平等에 對한 態度와 希望하는 結婚 形態와는  $P < 0.05$  수준에서 有意한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즉 仲媒婚을 希望하는 사람보다 戀愛婚을 希望하는 사람이 夫婦 平等에 對한 意識이 強하다.

男性에 對한 態度와 父母의 養育 態度와의 關係는 性 開放性과 마찬가지로 어느 項目에서도 有意한 差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現象은 現代 家庭의 父母-子女 關係에 問題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注目할 만한 것이다.

結 論

1. 要 約

日本 女大生의 配偶者 選擇 및 性意識을 알아보기 위하여 結婚 形態·結婚에 對한 態度·結婚觀·異性交際·性 開放性·男性에 對한 態度로 나누어 調査한 本 研究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結婚 形態에서는 대부분(60.5%)이 戀愛婚을 希望했으며 父母와 子女의 結婚 形態 사이에는 매우 有意한 ( $P < 0.05$  수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仲媒婚 希望이유로는 戀愛婚의 自信과 機會不足을, 戀愛婚의 希望理由로는 自信이 選擇한 相對가 좋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表 10. 夫婦 平等에 對한 태도와 希望 結婚 形態와의 關係

( )%

결혼형태 \ 평등에 대한 태도	평등에 대한 태도				計
	순종해야한다	평등할수없다	평등할필요없다	모든면에평등해야한다	
중 매 혼	13 (20.8)	12 (18.5)	33 (50.7)	7 (10.8)	65 (100)
연 애 혼	6 (5.8)	15 (14.4)	69 (66.4)	14 (13.4)	104 (100)
計	19 (11.2)	27 (16.0)	102 (60.4)	21 (12.4)	169 (100)

$X^2 = 9.43$   $df = 3$   $P < 0.05$

있으며戀愛婚의自然스러움도 큰理由로 들고 있다.

(2)結婚에 對한 態度에 있어서는 94.4%가 結婚을 希望하고 있어 높은 結婚志向性을 보여 주었고 結婚年齡은 일반적으로 적령이라고 보는 22세~25세까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結婚理由로는 現實的인 것(經濟的安定·生活의 便利·性的 滿足)보다는 精神的 安定에 두고 있다.

(3)結婚觀을 알아보기 위하여 結婚과 사랑의 問題·配偶者 選擇條件·父母의 評價에 對한 態度를 알아보았다. 結婚에 있어서 사랑이 필수불가결한 要因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64.4%로 支配的이나 結婚後 두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답한 경우도 32.8%나 되어 結婚에 對한 傳統性을 엿볼 수 있다. 또 配偶者의 選擇條件으로는 性格·人格·愛情等 內面的인 것을 優先으로 들고 있으며 學力, 收入, 將來性, 職業等 結婚後 經濟的 安定에 대해서도 重要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應答者(72.4%)가 本人이 選擇한 配偶者에 대한 父母의 評價를 尊重한다고 답하고 있으나 53.1%의 學生이 父母가 反對하는 경우에는 그 때 가뵤야 안다고 답하고 있어 서로 二律背反的인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結婚形態와 사랑, 配偶者選擇 條件, 父母의 反對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는 모두  $P < .001$  水準에서 높은 相關을 보여주었다. 卽 戀愛婚을 希望하는 경우는 開放的이고 進步的인 結婚觀을 仲媒婚을 希望하는 경우에는 保守的인 結婚觀을 가지고 있었다.

#### (4) 異性 交際

많은 應答者가 가능한한 많은 男性을 사귀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 配偶者 選擇에 自信이 없다고 답하고 있어 앞으로 日本 會社에 適合한 데이트 문화의 定立이 시급히 요구됨을 말해주고 있다.

(5) 性開放性에 對하여 愛情을 前提로 한 婚前性交는 許容的 態度를 보여주었고 性的 行爲의 許容範圍는 51.6%가 가벼운 肉體的 接觸(kiss 등), 41.6%가 性交와 팻팅을 許容하고, 性交의 許容비율이 팻팅의 許容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性에 對한 開放的인 態度를 보여준다. 그리고 父母의 養育態도와 性開放性사이에는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性開放性和 希望 結婚形態와는  $P < .01$  수준에서 극히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어 現代家庭의 機能의 弱화를 말해주고 있다.

#### (6) 男性에 對한 態度

理想的인 女性像으로 傳統的인 女性을 들고 스스로

도 受動的인 女性이기를 바라며 男性의 이러한 評價에 대해 好意的인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또 結婚後 夫婦 役割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12.0%로 除外한 모든 應答者가 夫婦의 平等에 대해 否定的 反應(女는 生理的으로 다르므로 平等할 수 없다, 役割이 다르므로 平等할 필요가 없다, 아내는 男便에게 順從하는 것이 좋다)을 보여주고 있다.

## 2. 提 言

以上과 같이 日本 女大生의 配偶者選擇과 性意識에 關하여 살펴보았다. 日本 女大生의 配偶者選擇은 戀愛婚을 希望하는 경우가 仲媒婚을 希望하는 경우를 능가하고 있지만 1960년대 以後 安定性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配偶者 選擇過程의 各 段階別로 이루어져야 하는 發達課業은 이에 對한 規範과 價値가 定立되어 있지 않아 원만히 行해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異性交際 중에 나타나는 性意識과 性行爲간에는 觀念과 行爲가 相異함을 보이고 있다. 男女의 性差異에 대해서는 傳統的 意識이 強하게 存續되어 있는데 비하여 性開放에 對하여는 매우 肯定的인 態度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過程에서 나타난 問題點의 하나는 家庭의 文化傳達 機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異性 交際나 性開放은 물론 西歐의 自由·平等思想에 基礎한 것으로 家庭의 役割보다는 社會·教育의 役割이 보다 重要하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家庭에서도 子女 養育을 통하여 傳統文化의 傳達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文化傳達 機能이 強化된다면 日本 社會에 適合한 異性交際의 規範이 보다 빨리 定立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本 研究는 韓國·日本·美國의 配偶者 選擇과 性意識의 調査研究中的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며 日本의 家族制度和 이에 영향을 미치는 日本文化의 傳統性和 그 歷史的 背景에 對한 研究가 先行되지 못하였고 표집상의 한계로 많은 制限점을 갖고 있음을 밝혀 둔다.

## 參 考 文 獻

- 11) 金榮玉: 婚前 性에 대한 態도와 行動. 서울大 家政科 碩士學位 論文 1982, P 15.
- 2) 남만성 外 4명 共譯: 國譯 海行摺載Ⅳ, 민족문화

- 추진위원회, 1977, P454.
- 3) 李光奎：韓國家族의 構造分析. 一志社, 1975, p92.
  - 4) 이석문 外 9名 共譯：國譯 海行摺載 Ⅲ. 1977, p 283.
  - 5) 崔達坤·鄭東鎬共譯：人類婚姻史. 博英社, 1981, p 23.
  - 6) 有地 亨：家族關係學 講義. 弘文堂, 1981, pp64~65.
  - 7) 岡堂哲雄：家族心理學. 有斐閣雙書, 1978, p 95.
  - 8) 總理府廣報室：婦人に 關する 意識. (世論調査) 1973.
  - 9) 總理府 青年對策本部：世界の 青年日本 の青年 (世界青斗 調査報告). 大藏省印刷局, 1973, p 25.
  - 10) 望月 嵩·本村 汎：現代家族の 包機. 有斐閣選書, 1980, p24.
  - 11) 望月 嵩·本村 汎：前掲書, pp 44~45.
  - 12) 望月 嵩·本村 汎：前掲書, pp 36~37.
  - 13) Takaashi, Mochizuki: *Changing pattern of mate selection. J.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981, VII, p 323.
  - 14) Takaashi, Mochizuki: 前掲書, P 325~326.
  - 15) 森岡清美：山根常男：家と 現代家族. 培風館 1976, pp26~65.
  - 16) Morioka, Kiyomi: *The Development of Family sociology in Japan. J.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981, XII, p8.
  - 17) 內閣官房內閣審議分室：內閣總理大臣補佐管室, 家族基盤の 充實, 1980. pp 78~80.
  - 18) 安田三部：社會移動の 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1, p 229.
  - 19) 湯 雅彥：新版 家族關係學, 光生館, 1981. pp48~49.
  - 20) 訖摩武俊：戀愛と 結婚, 金子書房, 1973.
  - 21) Edwards, J.N.: *Familiar Behavior as social Exchang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69, 31 p525
  - 22) Kerckhoff, A and Keith Davir: *Value consensus and Need complementarity in Mate selection, American Social Review*, 1962, pp295~303.
  - 23) Murstein, B.L.: *Mate Selection in the 1970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0. 42, p 779.
  - 24) Nye, F.I. and Felix M. Berardo: *The Family : it's structure and Interaction*, N.Y. Macmillan, 1973, p 180.
  - 25) Stinnett, N. and James walters: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Family*, N.Y. Macmillan, 1977, pp 21~27.
  - 26) Wesley, R.B. Reubin Hill, F. Ivan Nye, and Ira L. Reis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Free Press, 1979, Vol. 1. p 259~264.
  - 27) Winch, R.: *Mate selection*, N.Y. Happer and Brothers, 1958, pp 88~89.